

고마워요



흙에서 사는 미생물은 탄소를 모아들여요.
또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온갖 식물들은 호흡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우리는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흙은 비유적으로 말해 인간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아요.

참 고맙지요. 흙이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면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한 흙은 이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기본바탕이에요. 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발 딛고 서있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것이며, 온갖 크기의 다양한 동물들은 도대체 어디를 뛰어다니며 살 수가 있겠어요? 또 죽은 다음에 생명체의 몸을 누가 어디에서 분해해주겠어요? ‘지속가능하도록’ 흙을 관리하지 않으면 흙에 의존해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인간 포함)의 건강성은 금방 위협 받아요.



우리 지자체에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흙에 고마운 마음을 품는 것, 아주 좋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그치지 말고, 그 고마운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흙 살림=사람 살림’임을 명심하자는 말이에요.